



국립원호병원

서울의 퇴남단 오류동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 원호병원!

시내버스를 타고 한시간여를 달려 오류동중점에서 내리니 가까이 3.4층의 아담한 하얀 건물이 눈에 띄었다.

아, 상상했던대로 공기좋은 곳이고 환자들의 휴양지로 적합한 곳에 자리잡고 있구나!

무엇가 특징있는 병원이라 생각하며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정문을 들어섰다.

탁트인 넓은 운동장에선 남녀가 혼성이 되어 민방공훈련이 한창이다.

2층 간호과장실을 찾으니 역시 민방공훈련으로 “부채증”포식이 나붙어 있다.

잠시후 협회출판부에서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金峯女간호과장님은 어느새 훈련복을 갈아입고 들어서시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협회에 자주 오시지만 직접 안면이 낯지않고 평상시 약간은 쌀쌀한 인상을 풍겨주시는 김압녀 간호과장님이시기에 좀 어색한 기분으로 우선 방문취지를 말씀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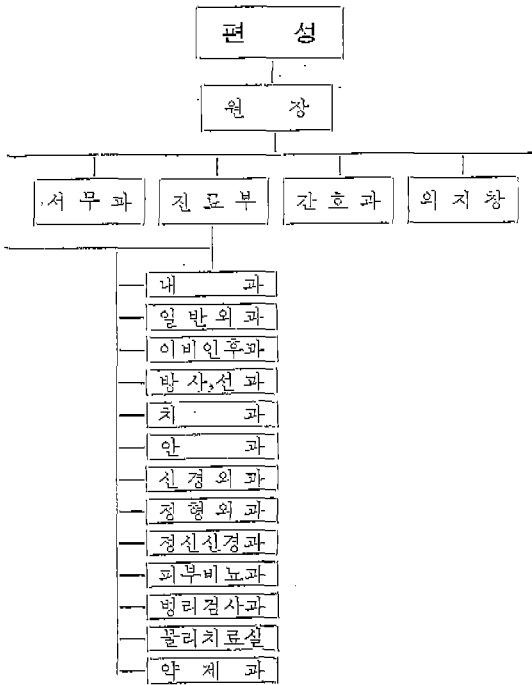
“다른 어느곳 기자가 찾아온 것 보다는도 우리 협회에서 탐방해 준데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됩니다. 협회와는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소외된 느낌을 종종 갖게 되곤 하지요”하시며 먼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신다.

이 병원은 이름 그대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당한 유공자를 원호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보상으로 무료치료를 해주고 있는 특수한 병원이다.

6.25상이군경을 위시해서 4.19상이자, 포로상이자, 피월상이자, 애국지사, 월남귀순자등이 그 대상이 되고있다.

1961년 7월, 보건의사회부소관인 구호병원을 원호처로 이관, 1962년5월 원호병원으로 조직개편되었고, 1969년 9월에 다시 국립원호병원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곳의 연혁이다.

병원의 넓이는 대지만도 1만 3천여평, 여기에 본관이 3층, 1.2별관이 각2층, 물리치료실, 의지창, 원호교회, 간호원기숙사등 연건평이 3,600여평이나 되는 완벽한 병원규모를 갖춘 곳이다.



입원능력은 300개의 Bed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최대원병원장을 비롯해서 17명의 행정직과 8명의 의사 그리고 28명의 간호원과 24명의 간호보조원, 이밖에 기능직 등을 포함하여 140여명이 있고 환자현황은 급수별로 나누어있는것

이 그 특징으로 현재 180여명의 재원환자중 입원기간 최장환자가 5년이상 7년미만이 3명, 최단환자가 3개월미만으로 107명, 그외는 3개월이상 5년미만환자로 대개는 장기입원환자로 되어있음이 급년초 통계에 나와있다.

한가지 타병원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현상은 소아환자도 없고 여자환자도 없는 순전히 성인 남자환자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특수병원 체제확립」을 급년도 병원운영방침으로 내세운 이 병원에선 미국 롱비취원호병원 기술 진단팀의 자문을 받아 외과적 치료와 물리치료를 위주토한 특수병원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하며, 원호교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환자선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연세의료원과의 자매결연을 맺겨 있어 비상시에 부족한 진료진의 협조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생활면을 살펴보면,

나라에 유공자라는 점과 비교적 장기 입원환자라는 동등된 입장이 흥여있어 투지력과 집념



지난 6월초 본병원을 방문한 여성국회의원님들이 단정히 차려입은 환자와와 환담하는 광경 <중앙에 뻗은 쓰신분이 김암내간호과장이며 병원간부진의 모습도 보인다.>

이 강하고 그나름대로 한 사회를 이루는듯 단결심과 우애가 깊은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데,

특히 40여명이나 되는 소위 1급환자인 척추장애환자들은 “一念會”를 조직하여 스스로 회원이 되고 “忠武精神”이란 지침을 내세워 李忠武공의 공적을 본받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생활개화, 활로개척, 의욕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도 회장, 교문, 감사등 치밀한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은 원장배 또는 원목배정말 체육대회를 열어 운동으로서 주로 정신통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체육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해마다 열리는 국제척추장애자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오는 7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금년대회에도 탁구와 창던지기부분에 4명의 선수가 이미 선발되어 맹연습을 하고 있다고 김안녀 간호과장님은 온근히 환자들의 자랑을 여신다.

이왕이면 우리 간호협회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릴걸 병원장님도 찾아뵙고 병원을 한바퀴 안내해 주시겠다는 과장님의 매려로 눈에 낯선 헬케어 환자며 (척추장애자) 각 병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마침 어느 교회에선가 인절미를 해가지고 병실마다 위문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환자 휴게실에선 역시 탁구대회가 화기있게 벌어지고 있는듯 한낮의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역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르새겨져 있는 이들이기에 국경일이거나 6.25등 특별한 날은 물론 평상시에도 종교단체, 학교, 사회단체 등에서 자주 위문을 와서 이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돋구어 주고 간다고 한다.

여기 28명의 우리회원은 이와같이 특수한 환자의 간호를 맡은 입장에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떠한 고통과 불안함이 있을가.

마침 자리를 같이 하게된 전원실간호감독과 수간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씩 털어놓게 되었다.

“어느병원의 환자보다도 Mental Care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다른국립병원보다 간호원들의 대우가 전반적으로 낮은데 비해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항상 긴장된 마음이 휘파라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간호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 곳이지만 환자들의 집념된 투지로 병을 이기고 화목이 이루어질때 더없는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고 지내지요”

세심하고 조금도 빈틈이 없어보이는 김안녀간호과장님은 62년에 이곳 간호과장으로 부임하여 금년으로 만 11년째를 근속해 오셨다. 타 병원보다 대우가 낮아도, 심한 고통에 부딪겨도 한마디 불평없이 이곳 환자와 日月을 같이하며 봉사해 온 노고가 얼굴에서, 피부에서 그리고 채취에서 강하게 풍기고 있다.

한편 간호장교로 군대생활을 해오시기도 한 김간호과장님은, 환자를 대하는 표정이 엄하면서도 친밀감이 넘친다.

협회에선 간호업무위원으로 그 활약이 크시며 금년엔 본회 감사이시기도 하다.

잠깐 다녀나오려던 기자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그곳 우리회원들의 따뜻한 매려로 정서깃든 아담한 간호원기숙사까지 안내되어 점심을 무질히 나누었으며 바쁜 가운데에서도 잠시동안의 정겨운 시간은 발길을 떨어지지 않게 했다. 공기좋은 이곳의 분위기를 아쉬워하면서, 들어갈때 말렸던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고 다시 시내로 오는 버스에 오르니 3시가 지나고 있었다. <林>